

[서식 예] 항소취하서

항 소 취 하 서

사 건 20○○나○○○○ 대여금

원고(항소인) ○○○

피고(피항소인)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(항소인)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.

20○○. ○○. ○○.

위 원고(항소인)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고등법원 제○민사부 귀중

제 출 법 원	항소심 계속법원	제 출 기 간	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 지(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)
제 출 부 수	항소취하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분 제출		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항소가 취하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만, 소가 취하되면 제1심 판결의 효력이 소멸되므로, 항소만을 취하하여야 할 것을 소취하를 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. ·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음(대법원 1971. 10. 22. 선고 71다1965 판결).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 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,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알려 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님(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다76 판결). ·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는 것으로서, 일단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는 후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는 종국판결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,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, 그 때문에 피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도 이는 그 이익이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의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할 것이므로, 이미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 대로 유효함(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다51543 판결). ·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1심 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,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지고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,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(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3다25875 판결). ·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(현행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)은 "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,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(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5다48599 판결). 		